

터치 한 번에 스스로 주차... 車 4바퀴 제각기 구동

#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 CES 놀라키다

| CES 2018 |



친환경차와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온 현대모비스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대 가전·IT(정보통신) 전시회 'CES 2018'에 참가해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 이동하는 기술을 올해 안에 개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술 발표회'에서 현대모비스는 원격주차지원(RSPA) 기술을 올해 초 양산 차에 적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구동, 제동, 조향, 헨가 기능을 하나의 바퀴 안에 담은 친환경 '이-코너(e-Corner)' 모터를 오는 2021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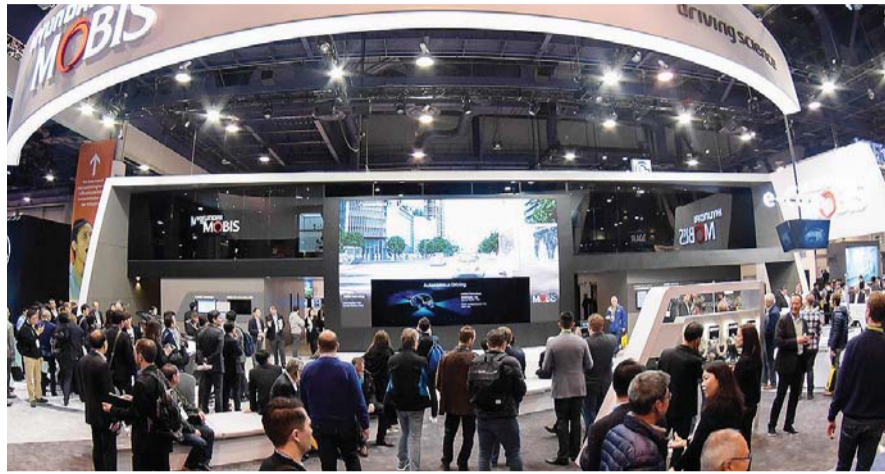
우선 원격주차지원은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면 조음과 센서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술이다. 다만 운전자가 차량 주차 공간을 미리 확인한 후 차에서 내려야만 이 기

'이-코너 모듈' 중심 로드맵 발표  
배열·폭·휠베이 등 자유롭게 조정

능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올해 초 양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보다 더 진화한 자동주차 기술이 자동발렛주차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올해 말까지 개발 완료할 방침이다. 자율주차나 안전자동주차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운전자가 탑승객이 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 원하는 목적지 입구에 내리면 차가 스스로 지상이나 지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 주차하는 기술이다.

자동발렛주차 가능하려면 조음과, 카메라, 라이다(물체인식 센서)와 같은 고사양 센서 기술과 고정밀 맵(지도) 등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주차장 공간 정보나 각 건물 주차 시스템과의 통신 연결 등 인프라도 중요하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말 자율주차 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문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2018CES' 현대모비스 부스 전경.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의 4개 바퀴가 각각 전기 모터로 따로 구동, 정지, 조향(방향조정)할 수 있는 이-코너 기술도 2021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코너'는 자동차에서 네 바퀴가 달린 모서리를 말하는데, 전통적 내연기관 차에서는 엔진의 동력이 여러 구동축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거의 바퀴 자리가 고정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FCEV) 등 친환경 차에서는 엔진과 드라이브샤프트(엔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가로 구동축)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이-코너' 구조가 가능하다.

'이-코너'가 적용된 차량의 4개 바퀴는 독립된 만큼, 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4개 바퀴의 배열, 폭, 휠베이

스(앞·뒷바퀴 거리) 등을 자유롭게 조정해 차량 크기(소·중·대형), 2륜 또는 4륜 구동, 디자인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기술은 운전자 개입없이 구동과 제동, 조향, 헨가(충격흡수) 등을 차량이 알아서 조절해야 하는 자율주행 시대에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현대모비스는 기대하고 있다. '이-코너' 시스템에서 각 개별 바퀴는 인휠모터, 전동브레이크, 전동조향, 전동댐퍼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모비스는 바퀴 구동을 위한 인휠모터와 전동 브레이크 기술을 올해 안에, 전동 조향장치와 전동 댐퍼 기술을 각 2019년,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고영석 현대모비스 연구기획실장(상무)은 "그동안 부품 매출의 7%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는데 오는 2021년까지 이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특히 전체 연구개발비 중 50%는 자율주행 센서와 지능형음성인식, 생체인식 등 정보통신(ICT)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동남아 모빌리티시장 공략 가속화

'동남아시아 우버'로 불리는  
車 호출업체 '그랩'과 맞선  
수백억원대 출자형식 투자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카 헤일링) 업체와 손잡고 현지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인 그랩에 상호 협력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출자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관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판 우버'로 불리는 그랩

은 2012년 설립해 동남아 8개국 168개 도시에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운전자 수는 230만명이며 운행 건수는 하루 평균 350만건에 달한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는 그랩의 사업 플랫폼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두 회사는 현대차 공급 확대와 공동 마케팅, 아이오닉 전기차(EV)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논의할 예

정이다. 또 차량과 이용자, 주행 여건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서비스와 사양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향후 그랩의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동남아 모빌리티 시장 내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장(부사장)은 "동남아 시장에서 축적된 그랩의 서비스 경쟁력과 현대차의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이 결합해 모빌리티 서비스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올 뉴 K3 렌더링 전측면.

## '올 뉴 K3' 6년 만에 풀체인지

기아자동차 신형 렌더링 첫 공개  
다이나믹한 쿠페형 루프라인 적용

기아자동차의 대표 내수 볼륨 모델인 'K3'가 새롭게 돌아온다.

기아차는 11일 '올 뉴 K3'의 렌더링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올 뉴 K3는 2012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기존 K3의 역동적인 디자인 콘셉트에 고급감을 더해 업스케일 세단 이미지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올 뉴 K3의 전면부는 기아차의 상징인 호랑이코 형상의 그릴, X자 형태로 교차된 주간주행등,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측면부는 한층 길어진 후드를 기반으로 루프를 지나 트렁크까지 매끈하게 이어지는 쿠페형 루프라인을 통해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볼륨감을 강조한 면처리로 세련미를 더했다.

후면부는 화살모양을 형상화 한 리어 램프와 트렁크 가니쉬 적용을 통해 와이드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 볼륨감을 강화한 리어 범퍼, 전면부와 동일한 수평형 방향지시등 적용을 통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한편 K3는 2012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까지 총 200만대가 판매된 기아차의 대표 모델이다. 기아차는 더 뉴 K3를 오는 15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전 세계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역차별 논란' 구글·페북 등 IT공룡, 韓 스타트업 지원

페북 '이노베이션랩' 개소 임박  
구글 캠퍼스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올해 상반기 구글 캠퍼스 서울의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6곳의 스타트업. /구글코리아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앞다퉀 국내 IT 스타트업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 내 경기도 판교에 500여개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랩' 개소를 앞두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관의 일종인 이노베이션랩 개소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진해 이뤄졌다. 이미 완공과 내부 작업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이 현지 스타트업 지원 시설 개소에 나선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첫 사례다. 이노베이션랩에서는 우선 국내 500여개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진출 등 집중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커리큘럼도 진행해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

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지원으로 국내 ICT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은 페이스북에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글 캠퍼스 서울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글 캠퍼스 서울은 2015년 5월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내에서 캠퍼스로 개관했다.

구글 캠퍼스 서울은 현재 캠퍼스 스타

트업 스쿨 등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육아로 창업의 꿈을 미루고 있었던 부모들의 창업을 돕는 '엄마를 위한 캠퍼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글 캠퍼스 서울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진출에 성공한 스타트업도 있다. 지인 추천 기반 인재 채용 서비스 플랫폼인 '원티드'는 2015년 캠퍼스 서울에 입주해 2016년 10월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IT 기업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맞닿아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고 매출을 거두고 있음에도 조세회피와 망사용 무임승차 등의 이슈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구글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여 등의 측면에서 구글 캠퍼스 서울과 같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나린 기자 silkni@

## 대우위니아 가정용 세탁기시장 진출... 4종 출시

대우위니아가 11일 '위니아 크린 세탁기' 브랜드로 드럼·전자동 세탁기 4종을 동시에 출시하며 가정용 세탁기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드럼 세탁기 3kg ▲드럼 세탁기 12kg ▲일반 세탁기 3.5kg ▲일반 세탁기 15kg 등 4종이다.

'위니아 크린 드럼 세탁기 3kg'은 아기 옷이나 속옷 등 소량 빨래를 분리 세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주 기능인 '고온 삶음' 기능으로 세균과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아기 옷 전용 세탁 모드로

'아기 옷' 코스도 필요에 따라 삶을 기능을 적용 가능하다.

중형 제품인 '위니아 크린 드럼 세탁기 12kg'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판넬부 각도를 14도 상향 조정하고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전자동 세탁기 역시 소형과 중형 제품으로 구성됐다.

'위니아 크린 일반 세탁기 15kg'은 세탁조에 촘촘한 토네이도 무늬가 적용돼 세탁물에 찌든 때나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탁한다.

/오세성 기자 sesung@